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12. 11.(금) 17:00 (총 6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전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김회철 전문관 양석종
		전화번호	063-249-3240

13일 비 또는 눈, 다음주 한파와 서해안 대설 주의

- 13일 전북 비 또는 눈, 14~15일 전북서해안 최대 20cm 눈
- 눈길, 빙판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!
- 눈과 함께 강추위, 14일부터 한파 주의



[12월 13일 오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전주기상지청(지청장 정종운)은 13일(일) 비 또는 눈이 온 후, 14(월)~15일(화) 서해안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상된다는 데에 대한 자세한 전망과 도민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전주기상지청은 고도 약 5km 상공에서 -25℃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오겠다고 하며, 이 찬 공기에 의해 서해상에서부터 눈 구름대가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되고, 기온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13일은 서해북부해상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해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아침부터 오후사이 전북지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.
- 전라북도는 오후에 비 또는 눈이 그친 후, 14일부터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서해상에서는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15일까지도 이 구름대가 서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- 특히, 이 시기(14~15일)에는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전역을 지배함에 따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.

[13일 비 또는 눈]

- 서해북부해상의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**13일 아침에 북서쪽에서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전북지역에 영향을 주겠다고** 예상하였다.
- 전라북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낮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.

<예상 적설(13일)>

- 전라북도 : 1~3cm

- 또한, 전주기상지청은 눈이 그친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될 수 있겠다고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,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- 다만, 예보관은 “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비가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고, 이 경우에는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”고 설명했다.

[14~15일 서해안 많은 눈]

- 전주기상지청은 서해상의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**14~15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**
-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**전북서해안, 특히 남서부지역(고창, 정읍, 부안)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**며,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당부하였다.

<예상 적설(14~15일)>

- 전북서해안(정읍 포함): 5~20cm
- 그 밖의 내륙: 2~7cm

- 또한, 예보관은 “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발달되어, **16일(수) 경에도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**”고 덧붙였다.

[추위 전망]

-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4일은 전북의 아침 최저기온이 13일보다 5℃ 이상 급격히 내려가면서 매우 추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,
- 이 기간(14~15일)에 동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℃ 내외를 기록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,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아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또한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7~10℃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,
- 다음 주에도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고 당부 하였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13일 오후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25~45km/h(7~12m/s)로 강하게 불면서 14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겠다고 분석하였다.

- (파도) 13일 오후에 서해남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~4m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 강한 바람과 물결은 15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특히, 서해상에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하였다.